11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

최 종 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

최 종 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촛불 대 태극기, 5070세대의 분열로 읽기

2016년 가을, 국가권력이 한 개인 내지는 특정 집안의 이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사유화됐다는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자 시민들은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촛불집회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10월 29일 1차때만 하더라도 2만에 불과했던 촛불집회는 곧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더니 12월 4일 232만명 운집이라는 사상초유의 집회로 성장했다(세계일보 2016/012/04). 그리고 기어이 국회의원 234명의 동의로 대통령탄핵소추안 의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시민이 촛불집회에 맞선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일명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이 집회에는 나이 지긋한 5070세대들이 주축을 이룬다. 5070세대는 멀게는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부터 전후 베이비부머세대까지를 아우른다. 2000년대 이후부터 진보적 2030세대의 대척점에 선 보수적 기성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2016-17년 역사적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의 주축으로서 다시한번 '조명'받고 있다.

촛불집회와 함께 태극기집회가 부각되면서 2016-17년 현재의 상황은 마치 매번 반복됐던 선거에서의 세대갈등이 광장에서의 세대갈등으로 옮겨온 듯 하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촛불집회와 나이든 세대가 주도하는 태극기집회가 탄핵이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광장에서 정면대결이라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0대 vs 60대 … 한파속 촛불·태극기 붙는다"와 같이 아예 제목을 세대갈등으로 잡은 언론기사도 눈에 띤다(헤럴드경제 2017/02/11).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촛불 대 태극기가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간의 세대갈등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도세력은 그렇다. 그러나 태극기집회에도 젊은 세대의 참여가 보고되고 있고 촛불집회에도 나이든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등장해 잠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젊은 수구보수 '일베'의 존재는 이제 그리 낯설지 않으며 이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유모차를 끌고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일명 '엄마부대'의 존재 역시 흥미롭다. 그러나 태극기집회의 젊은 세대만큼이나 촛불집회의 5070세대 역시 주목된다. 촛불쪽에도 상당한 수의 5070세대가 '가담'했기 때문이다.

태극기가 아닌 '촛불을 든 5070세대'라니, 다소 낯선 조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있고 그 수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촛불 대 태극기의 갈등을 단순히 세대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젊은 세대도 촛불과 태극기로 갈렸듯이 5070세대도 나뉘었다.

이글은 광장에 커밍아웃한 5070세대에 주목한다. 태극기집회로만 부각되고 있는 5070세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촛불을 든 5070세대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촛불 대 태극기 갈등은 세대갈등은 물론이고 진보 대 보수와 같은 이념갈등도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만, 태극기집회가 5070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보니 5070세대의 목소리는 오히려 태극기집회를 통해 좀더 잘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태극기집회의 '비상식'과 '색깔론'에는 분명히 선을 긋되 이와는 결을 달리하여 드러나는 노년층의 소외감에는 충분한 공감과 대책이 필요함을 짚어볼 것이다.

02 촛불을 든 5070세대

촛불집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멀리 외국의 사례가 아니다. 한국에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87년 6월항쟁 기간 동안에도 촛불을 든 거리행진이라든가 촛불기도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권). 그러나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그 당시 촛불집회를 오늘날의 촛불집회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와 같은 비폭력, 평화시위에 문화행사까지 곁들인 대규모 촛불집회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무고하게 사망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를 기리는 촛불집회가 등장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저항할 일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 때도 그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때도 그랬다.

촛불집회가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주도한 세력은 젊은 세대였다. 2008년부터는 10대 청소년까지 가세했다. 촛불집회에의 참여는 대체로 자발성에 의존했는데 그러한 자발성을 자극하고 동원한 매체는 인터넷, SNS,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였다. TV나 신문과 같은 올드미디어를 통해 주로 정보를 접하는 5070세대는 자연히 이러한 트렌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TV나 신문에 촛불집회가 소개됐더라도 이들 촛불집회들이 대체로 '진보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 5070세대에게 촛불집회는 '젊은 것들의 철없는 짓' 정도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5070세대가 촛불집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촛불집회는 세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언론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그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그중 시기별로 몇 개만 인용해 보면,

"애들에게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당한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똑같은 지위를 가진 독립국가로서 너무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애들한테 전해주려고 왔어요."

- 2002년 서울시청 앞 광장 촛불집회에 손자, 손녀 12명을 데려온 이원효씨(71세) 인터뷰, SBS 2002년 12월 14일자 보도자료.

노인들도 촛불집회에 나섰다. 서울 상계동에서 온 정낙청(86)씨는 "지난 79년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던 때보다 더 말도 안되는 사태"라고 말했다. 김수연(73·경기 군포)씨는 "어떻게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탄핵할 수 있나."라고 분개했다.

-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한 노인들 인터뷰, 서울신문 2004년 3월 15일자 기사.

청계광장 행사에는 70대 이상 노년층도 많이 참가해 손자뻘 학생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탑골공원에 있다가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는 김태우(74)씨는 "안 그래도 탑골공원에 있으면 노인들 사이에서 쇠고기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오늘 직접 와보자고 해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 2008년 미국 쇠고기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노인 관련 기사 및 참여노인 인터뷰, 매일신문 2008년 5월 6일자.

워낙에 젊은 세대가 주도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 그동안 노인들은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2016년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03 2016-17년, 구촛불 5070세대와 신촛불 5070세대

그런데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이전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우선, 5070세대 참여자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7년 신년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촛불집회에 50대는 23.5%가 참여하였고 60대 이상은 10.4%가 참여하였다. 이 비율은 2008년 촛불집회에 비해 각각 3.5배, 5배 상승한 수치다(<그림1> 참조).

<그림 1> 연령대별 촛불집회 참여율: 2008년 vs 2016년

출처: 내일신문(2017/01/04)

2004년이나 2002년 촛불집회와 비교한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 결과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2004년 촛불집회의 경우에는 17대 총선과 결합되었

었는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60-70대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노인폄훼성 발언을 함으로 인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발언은 선거에서 세대갈등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아마도 노무현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노인의 참여를 막는 역할도 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2016년 촛불집회와 그 이전 촛불집회의 차이점은 또 있다. 그 이전 촛불집회의 5070세대 참여자가 대체로 진보성향의 호남거주자들이었다면 2016-17년 촛불집회에는 진보·호남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내지는 보수성향의 영남거주자들도 가세했다는 점이다. 이번 촛불 관련 기사에는 유독 새누리당 골수지지자였다거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뽑았었다는 참여자가 많았다. 몇몇 기사들을 인용해 보면,

> 새누리당의 골수 지지자라는 이모씨(64·서울 한남동)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왔다"며 "이번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설 문제"라고 했다.
>
> - 한국경제 2016년 11월 13일자.
>
> 이날 촛불집회 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는 부산 출신 60대 여성이 "새누리당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어보니 이게 아니란 것을 알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백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
> - 국민일보 2016년 11월 14일자.

앞서 언급했던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여론조사자료 역시 이를 입증한다(<그림2> 참조).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는 광주, 전라도 지역민의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2016년 촛불에서는 서울 > 인천경기 > 대전충남 > 광주전라 > 강원제주 > 대구경북 > 부산경남 순으로 참여자가 많았다. 영남권의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저조하지만 2008년에 비하면 모두 상승했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2008년 5.4%에서 2016년 13.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념성향별로 볼 때도 진보층의 참여가 39%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중도층 19.4%, 보수층 17.3%로 낮지 않다(내일신문 201/01/04). 2016년 촛불집회에는 그 이전에 비해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념적, 지역적으로도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5070세대 역시 그러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그림 2> 지역별 촛불집회 참여율: 2008년 vs 2016년

출처: 내일신문(2017/01/04)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2016-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5070세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하나는 진보적 입장을 갖는 따라서 야당 성향의 5070세대들. 다른 하나는 보수 혹은 중도적 입장을 갖는 그래서 여당을 지지하거나 박근혜를 지지했던,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촛불집회에 가담한 5070세대들. 전상진(2017, 2)을 따라 명명해보자면 이들을 각각 구촛불 5070세대, 신촛불 5070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04 신촛불 5070세대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유 : 정치적 상식의 회복

구촛불 5070세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에서 인용한 과거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러 노인들의 인터뷰가 이를 입증한다. 이들은 2016-17년에도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에 5070세대의 참여자 숫자가 크게 늘었다면 그 이유는 신촛불 5070세대가 가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5070세대마저 촛불을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깰 정도로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수언론마저도 박근혜정부에 등 돌리게 만들었다. 보수적인 5070세대의 '변심'에 보수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5070세대는 주로 TV나 신문과 같은 올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세대다. 공중파TV나 일간지, 종편방송 등은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보수언론이 지배한지 오래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그동안 대부분의 사회현상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안 그래도 보수적인 5070세대의 보수적 정보'편식'을 보다 증폭시켜왔다(전상진 2017, 9).

그러나 현재의 국면에서는 이들 '조중동'과 종편채널마저도 박근혜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바른정당이 갈라져 나오고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보수의 분열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보수의 일부마저 박근혜정부에 등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는 이른바 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 상식이란 한 시대, 한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좀더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정치의 가장 선명한 균열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와 진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보수적으로 표현하자면 '법치'이며 진보적으로

표현하자면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가 될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개헌과정은 바로 진보가 요구했던 민주화가 보수적인 법의 형태로 구체화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민주화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제한된 민주화였던 이유는 그것이 보수쪽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 수준에서 법제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법치는 초기만 하더라도 기득권세력의 자의적 권력남용에 강력히 제동을 걸면서 '진보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사실상 보수진영에게 더 유리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검찰, 경찰, 사법부,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 감찰기관들이 보수적 인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신진욱, 2016). 따라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최근 보수주의자들이 더 자주 써 왔다(채장수 2009, 135).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는 진보학자들의 단골메뉴였던 것이 사실이다(최장집 2002; 조대엽 2009).

그러나 이번의 박근혜 게이트는 바로 그 '법대로'가 통하지 않는 사안이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헌법마저도 사뿐히 넘어섰다. 박근혜의 행보에서 헌법위에 군림했던 박정희의 유신통치의 향취가 느껴진다면 과연 지나친 표현일까?

게다가 배성인이 지적하듯 박근혜의 통치스타일은 기존의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적대관계에서도 벗어나 있었다(배성인 2016, 19).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전체 보수진영의 전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최소한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익이 배분되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최순실과 그 집안으로 대표되는 극소수의 비선실세가 모든 결정에 관여했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이 집중됐다. 어떤 납득할 만한 국정철학이나 원칙도 없었다. 여기에 토를 다는 자들에게는 여야 할 것 없이 '종북', 내지는 '배신'의 굴레가 씌워져 단죄되었다.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진보진영만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수의 상당수도 배제되었다.

보수진영의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 담론'인 성장주의 역시 박근혜를 구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만일 박근혜시대에 박정희시대만큼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10% 가깝게 지속되던 시절 군부독

재정권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동원했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성장주의의 최대의 강점이자 약점은 가시적인 물질적 성취를 보여주어야 실현되는 담론이라는 점이다(채장수 2009, 138). 집권 초만 하더라도 지지율 80%를 웃돌던 김영삼정권이 IMF외환위기로 하루아침에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곤두박질친 것처럼 '경제성장 담론'은 때로는 보수진영에게 가장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곤 한다. 2%대의 저성장시대인 오늘날 박근혜정부가 성장주의 담론을 들어 스스로를 방어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보수적인 5070세대마저 촛불을 들게 된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은 정치적 '상식'을 어긴 것에 대한 단죄, 다른 말로 하자면 법치의 회복-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염원 때문일 것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실제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국민전반의 지지를 더욱 고양시켰다. 여기에는 세대, 이념간 차이가 없다(<그림3> 참조). 1987년 6월항쟁의 문제의식은 2016-17년 촛불집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림 3> 민주체제에 대한 세대별, 이념별 승인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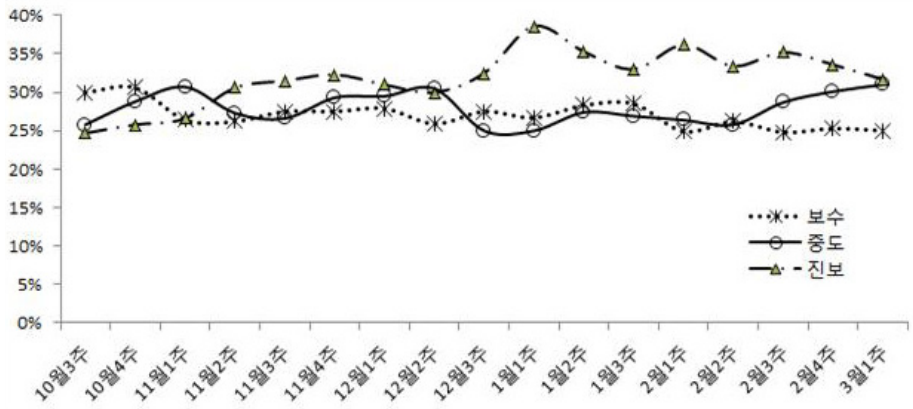
* 2016년 6월은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사회민주화 조사임.

출처: 내일신문(2017/01/02)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촛불 특히 보수-영남 5070세대마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념지향이 왼쪽으로 이동했을까 하는 점이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초까지 갤럽조사를 보면 보수가 줄고 진보가 늘었음이

확인된다(<그림4> 참조). 그러나 보수성향 역시 25%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도성향이 늘고 있음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이념성향과 사안별 관점은 다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보수-진보 쟁점인 북한에 대한 태도나 경제성장 쟁점들에서 진보적 관점이 확연히 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박근혜탄핵 쟁점과 별 관련이 없는 색깔론이 태극기집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안보쟁점이 5070세대에게 어필하는 힘을 보여준다.

<그림 4> 주관적 이념성향의 변화: 2016년 10월 3주~2017년 3월 1주>



출처: 한국갤럽 보고서 데일리 오피니언 232-248호 참조하여 재구성

따라서 현재의 촛불과 그것의 미래전망에 대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6월항쟁의 정신이 오늘의 촛불집회를 통해서 계승되었다고 해서 6.29선언 직후의 상황까지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몇몇 진보학자들처럼 촛불'혁명'이 박정희의 유산마저도 무너뜨렸다고 주장(김용흠 2016, 5)하면서 진보정책 드라이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 촛불은 상식을 어겼을 때 우리사회가 그것을 단죄하고 회복할 정도의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상식선 안에서 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소통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 제도적 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다(김동춘 2017, 218; 김상준 2016).

그러나 '진보'가 상식은 아니다.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식이지만 성장이냐 분배냐는 여전히 상식의 영역이 아니다.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북한을 포용할 것이냐 거리두기할 것이냐 역시 그렇다. 촛불집회에는 박근혜에게는 비판적이지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보수인사들도 다수 참여했을 것이다. 더디더라도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식의 영역을 확인하면서 그 외연을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럴 때 2017년 체제는 1987년 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

05 상식 외부의 태극기집회 : 색깔론과 장·노년층의 소외감 사이에서

촛불집회가 단순히 진보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중도도, 보수도 참여하는 집회라면 그에 맞서서 맹렬히 계속되고 있는 '태극기집회'도 보수주의자들의 결집이라고 하기 어렵다. 촛불집회가 정치적 상식의 회복을 염원하는 집합행위라면 태극기집회는 상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비상식'을 위한 집합행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 유독 나이든 세대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젊은 세대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워낙 적다보니 태극기집회를 구성하는 절대다수는 나이지긋한 5070세대다. 연령에 따른 탄핵 찬반 정도를 살펴보더라도 50대 이상에서 탄핵반대 비율이 상당한 편이다(<표1> 참조).

<표 1> 연령별 박근혜탄핵 찬반 정도

구 분	2016년 12월 2주차		2017년 2월 2주차		2017년 3월 1주차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20대	93%	2%	94%	3%	92%	5%
30대	94%	5%	91%	6%	95%	4%
40대	92%	6%	89%	7%	89%	9%
50대	79%	17%	70%	24%	67%	28%
60대이상	54%	33%	60%	31%	50%	39%
전체	81%	14%	79%	15%	77%	18%

출처: 한국갤럽 보고서 데일리 오피니언 제239호, 245호, 248호

물론 5070세대 가운데에서도 촛불쪽에 가담한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태극기를 든 5070세대는 자신의 동년배 가운데에서도 소수파다. 그러나 태극기집회는 오롯이 나이든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 시국에 그것도 한파의 날씨에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왔는지, 더불어 장·노년층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돌아보게 하는 효과는 분명 있다.

우선 눈에 띠는 점은 태극기집회에서 가감없이 울려퍼지는 '색깔론'이다. 사실 이번 박근혜탄핵쟁점은 북한쟁점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태극기 집회의 선동가들 입에서는 '종북주의자'니 '빨갱이'니 하는 말들이 수시로 나온다. '종북좌파로부터 국가를 구하자'와 같은 구호가 제창되기도 한다. 물론 '친북좌익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된다'와 같은(서울경제 2017/01/21) 이들의 언설이 얼마나 '상식'밖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쟁점이 북한쟁점과 별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이 활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070세대는 6.25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 경험한 전쟁세대 내지는 전후의 베이비부머세대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간직한 세대다보니 안보문제, 색깔론은 언제든지 5070세대를 동원하고 결집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안보쟁점을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5070세대의 마음을 얻기 어렵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집권하기 어렵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주는 듯하다(한상진·최종숙 2014, 4장).

태극기를 든 5070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이 산업화 세대, '좋았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세대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전상진은 이른바 '신성한 삼위일체' 즉 박정희-육영수-박근혜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의미를 강조한다(전상진 2017, 5). 박정희 시대때 이른바 '산업역군'으로서 조국의 근대화를 함께 했기에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에 대한 비판은 곧 이들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물론 박정희와 박근혜를 구분하고 박근혜를 '좋았던 박정희시대'를 망친 장본인으로 보는 5070세대도 일부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촛불쪽에 가담했다.

왜 이들이 박정희/박근혜 부녀와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사실보다 믿음, 팩

트보다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온당해 보인다(전상진 앞의 글, 6). 사실을 보려하지 않고 애초에 믿던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식 외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태극기집회 자체의 비상식성만큼이나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왜 '좋았던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것은 혹 현재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은 아닌가? 노인자살율,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반대로 노인행복지수 최하위, 사회적으로는 이미 '틀딱[1)]'이니 '꼰대'니 하며 '퇴물'취급받고 있는데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인으로 살아야 할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장신기 2016, 201-206).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나 노후대책, 노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장·노년층의 물질적, 정신적 소외감은 구촛불이든 신촛불이든 태극기를 들었든 모든 5070세대가 공유하는 문제다. 가족으로 묶인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곧 들이닥칠 문제이기도 하다.

박근혜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해서 이들의 소외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장·노년층이 현재 겪고 있는 소외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향수속으로 도피할 것이며 비상식의 동원에도 쉽사리 응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할배의 탄생』을 쓴 최현숙이 노인들의 태극기집회를 '인정투쟁'으로 표현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한겨레 2017/02/06). 실로 태극기집회 때문에 우리는 광장에 나온 5070세대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분석하고 논쟁하기에 이르렀으니까. '팩트를 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며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5070세대가 처한 '비상식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도 필요한 시점이다.

1) 노인이 주로 착용하는 틀니가 딱딱 부딪치는 소리를 줄인 말로 노인을 비하하는 신조어

06 공감과 소통을 통한 제도화로

탄핵국면이 끝나면 이제 대선국면이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이를 위해 진보적 구촛불과 보수적 신촛불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미 이들은 촛불 광장에서의 해후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광장의 정치는 곧 제도의 정치로 대체될 예정이다. 법과 제도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것이다. 누가 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과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가름 날 것이다.

5070세대에 대한 공감 역시 5070세대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할 수 있다. 신촛불 5070세대가 등장한 이상 5070세대를 더 이상 보수정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볼 근거는 없어졌다. 그동안 젊은 세대 위주의 선거전략을 짰던 민주·진보정당의 입장에서도 괜히 5070세대를 소외시키기만 하는 포지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507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진검승부가 필요하다. 한국의 5070세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누가 더 잘 이해하고 누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상식 밖에 머물러 있는 '태극기시민'의 마음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5070세대를 위해서도 정치세력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1)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6월항쟁을 기록하다』. 4권.

2) 김동춘. 2017.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 국면."『황해문화』통권94호. 202-220.

3) 김상준. 2016/12/16. "나는 왜 '시민의회'를 주장하는가: '사회개혁기구'와 시민의회." <다른백년> (http://thetomorrow.kr/archives/3314).

4) 김용흠. 2016. "2016년 촛불혁명과 문명의 전환."『내일을여는역사』통권65호. 4-11.

5) 배성인. 2016. "촛불항쟁과 박근혜퇴진의 정치사회학."『진보평론』통권70호. 13-34.

6) 신진욱. 2016. "한국에서 결손민주주의의 심화와 '촛불'의 시민정치"『시민과세계』통권29호. 1-26.

7) 장신기. 2016.『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시대의 창.

8) 전상진. 2017. "맞불 시민과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에게 예외는 없다."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시국대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발표문. 1-10.

9) 조대엽. 2009.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한국과 국제정치』25(1). 179-210.

10) 채장수. 2009.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한국정치학회보』43(1). 129-150.

11) 최장집. 2002.『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12) 최현숙. 2016.『할배의 탄생: 어르신과 꼰대 사이,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 이매진.

13) 한국갤럽. 2016.10~2017.3. <데일리 오피니언>. 232-248호.

14) 한상진·최종숙. 2014.『정치는 감동이다』. 메디치미디어.

신문기사

1) 국민일보. 2016/11/14. "'분노의 촛불' 세대·신분 뛰어넘었다."

2) 내일신문. 2017/01/02. "민주주의가 다른 체제보다 낫다."

3) 내일신문. 2017/01/04. "연령·지역·이념 무관, 모두가 촛불 들었다."

4) 매일신문. 2008/05/06.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1만여명 집결."

5) 서울경제. 2017/01/21. ""군대여 일어나라" 서울 도심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6) 서울신문. 2004/03/15. "노무현 대통령 싫지만 수구세력 횡포 더 싫다."

7) 세계일보. 2016/12/04. "96만→190만→232만…"민심이 숫자 레이스 될라"."

8) 한겨레. 2017/02/06. "태극기집회 노인들 외침은 일종의 인정투쟁."

9) 한국경제. 2016/11/13. "교복·유모차·'혼참'·노인…'100만 촛불'이 낳은 신시위문화."

10) 헤럴드경제. 2017/02/11. "20대 vs 60대 … 한파속 촛불·태극기 붙는다."

11) SBS. 2002/12/14. "부시 공개사과 때까지 집회 계속."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7년 3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9 772508 324001 03
ISSN 2508-3244